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학인의 책임



어 윤 배
숭실대 총장

최근의 금융 비리 사건, 주가 조작과 벤처 기업의 기품 파열, 공직자의 기강 해이, 집단 이기주의와 준법 정신의 침식,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결과 국정 운영의 경색, 교육계와 언론계의 혼란 등 총체적인 나라의 위기를 접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개탄하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근원적 원인으로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을 들고 있다.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치유 대책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사람마다 교육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도대체 우리 나라의 교육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서는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이 사회 일반에 만연되었다는 것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만점 합격자가 66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출제의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변별력 측정과 대학의 합격자 선별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언론과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와 사회 일반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의 원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들 특히 대학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자성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교육계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부재 현상에 불감증 내지 마비 현상에 병들어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 교육계가 사회 일반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에 책임을 통감하고 그 치유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 과연 기대해 볼만한 미래는 있는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

차고로 교육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변화를 주어 책임성 있는 시민이 되도록 그 인성과 성품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는

“

교육계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부재 현상에

불감증 내지 마비 현상에 병들어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

교육계는 사회 일반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에 책임을 동감하고

그 치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이 국가 발전과 대외 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청과 개인적 욕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음은 세계적 현상이다. 인문 사회나 교양 학문 분야보다는 과학 기술 영역에 더 높은 비중을 두게 되었고, 기초 과학 분야보다는 실용적 가치가 높은 응용 과학이나 공학에 사회적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학은 이제 인성 개발과 덕성을 교육의 덕목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전문적 기능 인재 양성에 몰두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로 말미암아 수능 시험의 고득점 학생들이 몰려가는 대학과 전공 학과는 세칭 일류 대학이 되고, 인기 학과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점수 위주의 대학 입학과 학력 편중의 사회 진출의 풍토가 건재(?)한 한 민주 시민 봉사 정신의 덕목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교의 기초 교육이나 그러한 덕목의 전문 영역별에서의 실천적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교육이 어떻게 건전한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능 시험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불법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이나 그러한 학생들을 다수 모집하여 일류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고 광분하고 다니는 대학에 과연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으로 야기된 사회적 총체 위기의 치유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학 신입생 선발의 기준과 대학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 목표를 대학 사회는 심각하게 성찰하고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책임성 있는 민주 시민 봉사 정신의 덕성과 전문 지식과 기능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하는 대학 자체의 교육 개혁과 방법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체계 있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대학인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밑에 깔려 있는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의 연쇄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대학인들은 이러한 시대 정신의 과제를 풀어 나갈 덕성과 책임 의식과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뜻을 함께 하는 대학인들이 그 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고 신입생 선발 방법과 대학 교육의 구조와 방법의 개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부재 현상의 연쇄 고리를 끊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